

# '아이스클라이밍' 이영건, 세계 빙벽 1인자 꿈꾼다



이영건이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2023 UIAA 사스페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 벽을 오르고 있다. (이영건 제공)

###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리드 부문 1위 '2024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서 우승 도전

거대한 인공빙벽을 '아이스 바일'로 찍어 오르며 난이도와 속도를 겨루는 종목,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랭킹 5위 아이스클라이밍의 강자 이영건(30·전남향군산악회)이 올해 첫 세계무대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4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이영건이 기다리던 무대다.

최근 청송에서 열린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리드 1위에 오른 이영건이 전세계 20여개국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줄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영건은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면서 빙벽에 눈을 떴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출전한 첫 대회를 시작으로 16살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이밍을 시작한 그는 선수 생활을 한 지 올해로 14년째다. 이영건은 2016년 처음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가 된 이후 2017년도부터는 아이스클라이밍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암벽등반에 대한 경험은 많았지만 처음에 아이스클라이밍을 접했을 때는 새로웠다. 암벽 같은 경우에는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데, 아이스클라이밍은 맨손으로는 불가능하고 '아이스 바일' 등의 장비를 사용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처음 아이스클라이밍을 접했던 순간을 전했다.

1월 5일 태생인 그는 매년 시즌과 생일을 동시에 보내며 대회 결과로 스스로에게 '셀프 선물'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송에서 '2024/2025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2024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서 그는 남자 일반부 리드부문 1위, 남자 일반부 스피드 2위를 달성하며 세계 랭킹 5위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영건은 직전 대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 12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 2차전 전국드라이틀링 대회에서 그는 남자 일반부 리드 3위를 기록했다. 드라이틀링 대회는 암벽 구간을 빙벽 등반 장비를 이용해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그때 운동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살짝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번에 그래도 잘 해내서 다행이다"고 이번 1차 선발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월드컵을 바라보며 운동해왔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이번 대회에서 더욱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송 대회를 마치면 곧바로 스위스로 이동한다. 오는 24~26일에는 스위스 사스페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2월 16~18일에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피어인십이 열린다.

이번 청송 월드컵을 포함한 국제대회의 참가 신청 가능 대상은 국내 종합랭킹 상위 8위에 오른 선수다. 이영건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1·2차전을 종합해 국내랭킹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캐나다 월드컵피어인십 뒤에는 2월 24~25일 105회 전국동계체육이 열린다. 2016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범 종목으로만 운영되던 아이스클라이밍은, 이번년도 전국동계체육부터 정식종목으로 전환됐다.

앞으로의 선수생활을 내다보며 이영건이 하는 기대 중 하나는 아이스클라이밍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다.

아이스클라이밍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프로젝트는 과거부터 풀리지 않은 숙원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첫 쇼케이스를 열어 관심을 모았던 아이스클라이밍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2018년 평창에서의 시범경기 개최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산악연맹이 예산 등을 이유로 쇼케이스 취소를 결정하면서 정식 종목 채택을 바라던 선수들의 희망은 무너졌다.

이영건은 "제일 꿈같은 일인건 한데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들이 좋은 훈련 장소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송 월드컵 대회를 앞둔 그의 컨디션은 '최상'이다.

그는 "컨디션은 아주 좋다. 첫 번째 목표는 등반 시 변수를 최대한 줄여서 내가 원하는 등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완벽한 등반을 하고 나서 우승까지 하는 것이다"고 포부를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호주오픈 14일 개막...우승은 '또코비치'?

### 메이저 25승 도전 관심...권승우, 남자 단식 본선 출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가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는 총상금 규모가 8650만 호주달러, 한국 돈으로 765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7650만 호주달러보다 13% 증가한 액수로, 남자 단식 우승 상금도 지난해 297만5000 호주달러에서 315만 호주달러(약 27억8000만원)로 증가했다.

올해 호주오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의 메이저 대회 단식 25번째 우승 도전이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4번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만 10번 우승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고, 지난해에도 우승하는 등 최근 출전한 네 차례 호주오픈을 석권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로 호주 정부와 법적 소송까지 벌인 끝에 결국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

조코비치가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호주오픈 단식에서 35연승을 달리는 것과 동시에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25회로 늘린다. 이는 남녀를 통틀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신기록이 된다.

일단 대회 개막을 앞두고 조코비치의 컨디션은 썩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이달 초 호주 퍼스에서 열린 유나이티드컵에서 엘릭스 디미노어(10위·호주)에게 0-2(4-6 4-6)로 졌는데 이는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2018년 호주오픈 이후 6년 만에 당한 패배가 됐다.

2018년 호주오픈 16강에서 정현에게 0-3(6-7(4-7) 5-7 6-7(3-7))으로 패한 이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조코비치의 대회 2연패 도전을 견제할 후보로는



대회 개막에 앞서 훈련 중인 조코비치.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첫 손에 꼽히고 이어 다닐 메드베데프(3위·러시아), 안니코 신네르(4위·이탈리아) 등이 거론된다.

여자 단식은 이가 시비온테코(1위·폴란드)와 지난해 우승자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과 2021년 호주오픈 챔피언 오사카 나ومی(833위·일본)가 복병으로 지목된다.

한국 선수로는 권승우(206위·당진시청)가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

권승우는 지난해 1월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하며 패조의 출발을 했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실패와 매너 논란, 부상 등이 겹치며 어수선한 하반기를 보냈다.

권승우는 호주오픈에서 2022년 2회전이 자신의 최고 성적이다.

## '별들의 축제' 프로농구 올스타전 열린다

### 14일 고양서 허웅·하윤기 등 출전 '크블몽팀' vs '공아지팀' 격돌 허훈·김선형 부상으로 출전 불발

국내 남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이번 주말 경기도 고양에 총출동해 팬들을 만난다.

14일 오후 2시부터 고양 소노 아레나에선 2023-2024 정광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펼쳐진다.

이번 올스타전에선 선수들이 KBL 캐릭터인 'KBL 프렌즈'의 캐릭터 이름을 딴 '크블몽팀'과 '공아지팀'으로 나눠 '별들의 전쟁'에 나선다.

김주성 원주 DB 감독이 이끄는 크블몽팀은 3년 연속 팬 투표 1위(16만6616표)에 오른 허웅(KCC)을 필두로 디드릭 로슨(DB), 이정현, 전성현(이상 소노), 하윤기(KT), 유기상, 이관희(이상 LG), 송교창(KCC), 박지훈(정광장), 김나현(한국가스공사), 김시래(삼성), 허일영(SK)으로 구성됐다.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지휘하는 공아지팀은 자밀 위니(SK), 최준용(KCC), 양홍석(LG), 김종규, 강상재(이상 DB), 이우석(현대모비스), 이재도(LG), 이정현(삼성), 문성근(KT), 대릴 먼로, 최성원(이상 정광장), 이대현(가스공사)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최고의 별'로 우뚝 선 하윤기와 2022년 최우수선수(MVP) 허웅, 2020년 MVP 김종규 등 최근 세 차례 올스타전 MVP(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개최)가 올해 모두 출전한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지옥'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이관희, 이번 시즌 리그 전체 득점 1위(25.8점), 리바운드 3위(11.4개)에 오르는 등 맹활약하는 위니의 활약도 주목된다.

이번 올스타전을 앞두고는 '부상 변수'가 다수 발생했다.



15일 경기도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프로농구 올스타전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하윤기가 덩크슛을 하고 있다.

애초 크블몽팀엔 이원석(삼성)이 발탁됐으나 최근 경기에서 코뼈를 다쳐 뛸 수 없게 되면서 팬 투표 25위인 허일영이 대체 선발됐다.

공아지팀이었던 올스타전 최다 MVP(3회) 김선형(SK), 이번 올스타 투표에서 형 허웅에 이어 2위에 올랐던 허훈(KT)도 각각 발목과 다리 근육 부상으로 나설 수 없어 차순위인 강상재와 최성원으로 바뀌었다.

하프타임에 열리는 덩크 콘테스트엔 송교창(KCC), 패리스 베스(KT) 등 10명이, 1쿼터 종료

후 진행되는 3점슛 콘테스트엔 허웅, 전성현, 로슨 등 14명이 참가한다.

이달 8일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자 3분 만에 5561석이 매진돼 흥행을 예고한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선수입장 때 3D 매핑 영상과 DJ 쇼가 펼쳐지며, 선수들은 팬들이 추천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하프타임엔 '언더워터' 등으로 큰 사랑을 받는 가수 권승우가 축하 공연으로 열기를 더욱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2부
2관	외계+인 2부
3관	노랑: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4관	위시
5관	서울의 봄
6관	위시, 노랑: 죽음의 바다
9관	신지원: 평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스페이의 문단속: 다녀왔어
7관 씨네마	스즈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메이킹 다큐멘터리 '스즈메의 문단속'을 따라가다. 인투 더 월드, 길위에 김대중
8관 씨네마	립세의 세계,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전남대학교 연주마루  
문의: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